'17.9월 물류전문 모니터 정기 동향조사 결과보고

1. 對한국 해상운송 및 미국 트럭 내륙운송 모니터링 주요내용

□ 미국 오클랜드항 등 서안 항구에서 도정공장까지의 내륙운송 및 부산항까지의 컨테이너 운송 상황은 큰 변화가 없으나 벌크선 운임은 시장 상황 개선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

○ 벌크선 해상운임의 지표인 BDI는 9월 현재 1,415포인트로 '17년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으며, 언론 및 관련 업계에서는 BDI의 강세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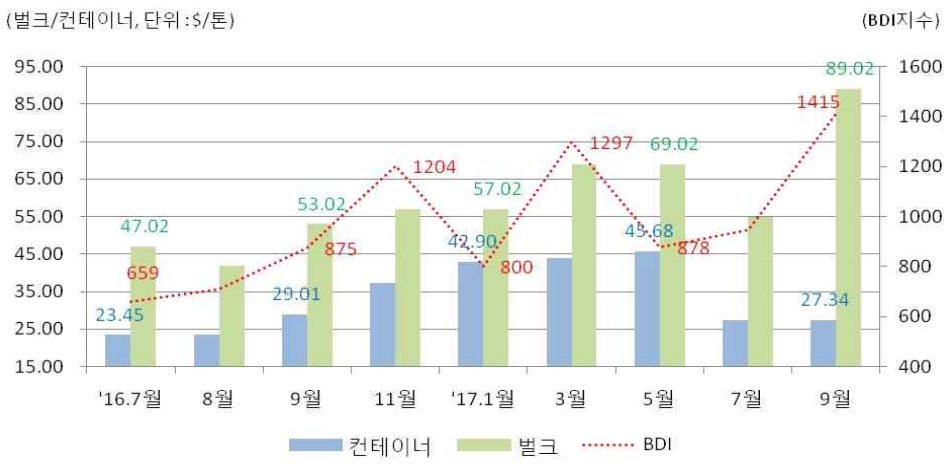
- 9월 현재 오클랜드항에서 부산까지의 핸디사이즈(1만5천톤기준) 벌크선박 해상운임 추정가격은 89$/톤 수준으로 3월 69$/톤 대비 28% 가량 상승
- 중국의 석탄, 광물, 곡물류 수입량 증대 등 운송수요 증대와 더불어 선사들의 노후선박 폐선에 따른 공급량 감소에 따라 전반적인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모니터 분석 보고

○ 미국발 컨테이너 해상운임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계절적으로 상승기임에도 당분간 해상운임은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

- 컨테이너 운임은 미국의 아시아행 수출물량에 큰 변화가 없는 상항에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아시아발 대미국 수출물량이 증대됨에 따라, 리턴 라이너의 운임이 약세유지
- 또한, 선사간의 인수합병으로 운행 라인수의 감소와 선박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, 선사에서는 운임상승을 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수요의 부족으로 가격상승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

○ 미국 도정공장부터 항구까지의 트럭 내륙운송 상황은 양호하며, 오클랜드항구로의 진입에 적체가 일부 있으나 큰 지장은 없는 수준

<미국발 한국행 컨테이너 및 벌크선박 해상운임 비교>



□ 한국발 미서부항만행 20ft. 기준 해상운임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수출물량이 증대한 것에 비해 제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

○ 8월 미국 롱비치항 등의 물동향이 6월 대비 10% 가량 증대하였으나, 주요 선사들의 인수합병 진행 및 선복 투입량 증대에 따른 공급 물량 증대로 해상 운임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

<한국발 미서부 항행 20ft. 컨테이너 해상운임 동향>